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2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25일 (음력 6월 3일) 화요일

전남 수산물 수출액 1억 돌파 '역대 최고'

김,전체 수출 증가 이끌어...이어 전북-미역-투스

"수산물 수출기업 육성 강화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전남도는 2017년 상반기 전남 수산물 수출액이 김 수출 증가에 힘입어 1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8900만 달러보다 15.1%가 늘어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11



홍련(紅蓮)의 유혹

연이 폭염주의보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4일 강진군 작천면 용정마을 연못의 만개한 홍련이 화사한 꽃 잔치로 점동머리를 식혀주고 있다.

억 2000만 달러로 12.1% 늘었다.

수출 품목 가운데 김은 전국적으로 2억 6900만 달러로 수출 최고액을 달성했으며, 전남에서도 5100만 달러로 지난해(4200만 달러)보다 19.8%가 늘면서 전체 수산물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농수산업계의 반도체라는 이름에 걸맞은 상승세다.

상위 5개 수출 상대국의 수출액 실적은 일본 5500만 달러(54%), 중국 1600만 달러(16%), 미국 1600만 달러(16%), 대만 400만 달러(4%), 태국 300만 달러(3%) 순이었다.

주요 품목별 수출액 실적은 김에 이어 전북 1800만 달러, 미역 1200만 달러, 톳 800만 달러 순이었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연화 강제와 수산물 소비가 회복되면서 전북이 1700만 달러로 11% 미역이 800만 달러로 24%가 각각 늘었다.

중국은 김 작황 부진으로 우리나라 김 수요가 늘어 1100만 달러로 무려 17.4%나 증가했다.

하지만 전북 수출은 지난해 중국 내 전북 생산 부진으로 한국산 전북 수요가 많았으나, 최근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10만 달러 수출로 지난해(170만 달러)보다 94%나 줄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 세계적인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전남 수산물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수산물 수출기업 육성 강화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승세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 장 출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최근 방송된 KBS '남비반침'에 출연해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아 '제가 레드카펫을 밟겠다는 것이 아니라 리미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실력있는 민주당의 정당, 똑똑한 정당을 키우고 싶다고 "그러려면 모두 사심 없이 힘을 보태야 하는데, 당을 지휘하는 당대표가 사심을 얹으면 안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제가 대표로 있는 동안 100년 정당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제보 조작 사건을 두고 국민양심과 대립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결국 국민을 속여 한 것이며, 국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도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자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 · 자료 사진 = 뉴스시스



추미애

내년 서울시 장 출마 관심 없다



이재명

생각 잘하셨네



추미애

많이 컸네

"광주시민 10명 중 8명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반대"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주)에 스타이아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광주시민 1000명을 상대로 한 매각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응답은 84.1%로 드러났다. 찬성 8.7%, 잘 모르겠다 7.2% 순이었다.

금호타이어를 해외 매각하면 기술이

유출되고 고용은 승계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매각'이 될 것 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72%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8.1% '잘 모르겠다'는 9.9%로 조사됐다. 금호타이어를 누가 인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이라는 응답이 86.2%였다. '해외기업'이라는 응답은 6.2%에 불과했다.

뉴스시스

광주·전남 폭염특보 이어져...오늘 장맛비

"일부 지역 열대야 나타나"

8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와 전남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예보됐다.

2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와 전남 화순·나주·순천·광양·여수·보성·구례·곡성·담양에 폭염경보가 발효중이다.

거문도·초도를 비롯해 무안·장흥·진도·신안(흑산면 제외)·목포·영광·함평·영암·완도·해남·강진·고흥·장성 등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연중 이를 가장 최근 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를 발효하고 있다.

25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날부터 이틀 간 광주와 전남지역 예상강수량은 30~80mm다. 시간당 많게는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다"며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